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지 않는 'FSF'

(연료전환성과계수)

발전기여도 가중치 높아 연료전환 신호 약해...원자력(가스)석탄 順 지적
환경기여도 가중치 UP, 안전요소 고려 친환경·분산형 전원 수익성 개선 필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전환성과계수(FSF)가 실질적인 연료전환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도입했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SF의 산정기준은 발전기여도(80%)와 환경기여도(20%)로 구성되며, 기준용량요금에 곱해지는 계수다.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가 높을수록 용량요금이 높고, 낮을수록 용량가격이 낮다.

발전기여도는 발전기의 이용률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발전단가순위가 발전기의 이용률을 결정짓다보니 원자력>석탄>가스발전 순이다.

환경기여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원자력>가스>석탄발전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 발전기여도 가중치가 80%나 돼서 실질적인 연료전환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최소 4~5년간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설비가 더 늘어나 LNG설비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LNG복합의 용량요금을 빼앗아 원전과 석탄발전에 더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에너지원별 FSF 평균값을 보면 원자력이 1.0352로 가장 높고, 가스는 1.0349, 석탄은 0.9360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해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탄은 LNG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2배 이상이지만, 현행 FSF는 환경기여도의 비중이 낮아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0.2에서 0.8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현행 FSF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시, 경제성, 환경성, 국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FSF에는 제한을 뒀서 가스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우대하도록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남부발전 대학생 서포터즈 초청 에너지·환경 세미나

한국남부발전이 재생에너지 3020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을 초청해 발전설비 견학과 에너지·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은 지난 10. 11일 이틀간 부산지역의 대학생 120명으로 구성된 'KOSPO 대학생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견학, 취업설명회, 에너지 관련 특강 등을 진행했다.

발전소를 처음 찾은 대학생 서포터즈는 발전소 규모와 역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보며 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에너지 관련 특강에서는 남부발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통해 신재생 3020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해주고, 학생들의 질문에 꼼꼼히 답변했다.

정형석 기자

죽어가는 가스발전 이대로 둘 것인가

- (1) 가스 중북구매 등 가스공사와의 계약방법 개선 필요
- (2) 전력시장제도 개선 통해 고정비, 변동비 현실화해야
- (3) LNG세금조정, RPS제도 산정기준 등 합리화해야

SMP 대비 연료비 역마진 정산구조, 한시적 PPA 필요 돌릴수록 적자인 이상한 구조...안둘리니 오히려 흑자 발전비용 현실화 필요하지만 전력구입비 증가요인 부담

지난해부터 원전이용률 하락 등의 여파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면서 LNG발전 회사들의 수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스공사보다 연료를 싸게 적도 입고 있거나 한전과의 PPA계약이 남아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연료비보다 SMP가 낮게 형성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LNG발전업체는 SMP 대비 연료비 역마진이 발생하는 정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SMP 대비 역마진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연료비를 낮추거나 고정비나 변동비 등 정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구조인 셈이다.

유가의 변동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전월의 낮은 연료비용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돼 발전사업자는 초과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현행 발전연료비용 반영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가스공사가 유가와 환율 등의 변동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CP)을 올리거나 발전기 기동비용과 비계약발전, 제약발전,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등의 발전비용을 합리화해야 한다. 현재의 용량요금은 고정비 회수가 어렵고, 발전기 기동비용도 각 발전기의 조합 및 기동특성에 관계없이 GT 1대, 평균 기동비용이 1000원 이하의 단가를 적용해 현실적인 기동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서비스는 주파수 추종, 자동발전제어, 자체기동, 대기·대체 예비력으로 정산하는 데, 전력시장 규모가 지난 10여

년간 2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서비스 정산액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동안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SMP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산요금 체계를 바꿀 경우 한전의 적자(전기요금 인상요인)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다소 소극적으로 바뀐 모양새다. 더욱이 국회 여당 내에서는 스스로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대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데다 효율 좋은 최신 LNG 발전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경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형석 기자

중부발전, 일터혁신 참여형 변화관리 워크숍

청년이사·기업문화 CoP 리더 40여명 참석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0. 11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청년이사 및 기업문화 CoP 리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형 변화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부발전은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개선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이사회와 각 사업소 조직문화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문화 Co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업문화 CoP와 청년이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

직적이고 권위적인 소통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수평적 토론문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혁신문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형석 기자



서부발전, 여성기업 육성 '앞장'

여성경제인협회와 MOU·구매상담회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여성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서부발전은 1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한무경)와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기업 우수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환 BY인더스트리 대

표 등 31개 여성기업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이날 행사에서 협력중소기업과의 연구과제, 특허 기술이전 등 협업 활동으로 발생된 성과공유금액 5000만원을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가장 창업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서부발전은 그동안 여성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우수제품 판로확대, 우수 여성기업 육성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태안, 평택, 인천, 군산 등 사업소별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계약보험료 지원, 여성기업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이화여대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 노력으로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여성기업 우수제품도 구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업체

유원이엔씨(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체계적인 관리, 정확한 판단력과 Know-how를 가진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유원이엔씨(주)는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한걸음씩 성장하며,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45-1 유원빌딩
Tel (051)294-9171~2 Fax (051)294-9173